



조선시대 평해와 울진의 군수와 현령들의 교체 사유

도 춘 호*

- 목 차 -

1. 서론
2. 조선시대 평해 군수들의 교체 사유
3. 조선시대 울진 현령과 군수들의 교체 사유
4. 토론과 결론

1. 서론

한문으로 1899년경 편찬된 “강원도 평해군읍지(平海郡邑誌)” 와 1939년 국한문으로 편찬된 “울진군지(蔚珍郡誌)”를 고맙게도 울진문화원에서 한글로 번역해서 한글 세대인 우리가 그 내용을 쉽게 알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번역을 비교해 볼 수 있도록 원문도 수록해 두었다. 평해군은 고려 초기 현에서 군으로 승격하였고, 울진군은 통일신라때에는 군으로, 고려와 조선에서 현으로 존재하다가 조선말기 제2차 갑오개혁 때 1895년 울진군으로 승격하였다. 평해군과 울진군은 일제시대인 1914

* 전 순천 대 교수. 울진을 거주

년 합쳐서 울진군으로 되었고, 울진군은 1963년 강원도에서 경상북도로 편입되었다. 조선 시대 때 평해군과 울진군의 단위 행정 구역이 달랐으므로 평해군읍지와 울진군읍지 각각 편찬된 것이다.

울진문화원에서 2017년 한글로 번역한 “국역 조선환여승람 울진군. 강원도 평해군 읍지” (참고 1) 중 “강원도 평해군읍지” 와 울진문화원에서 2012년 한글로 번역한 “국역 울진군지” (참고 2)의 두 번역본에는 각각 평해군과 울진군의 조선시대 군수 및 현령들의 이름, 재직 기간, 그리고 교체 사유 등이 간단하게나마 기록되어 있다. 이 자료들은 조선 시대 군수들의 자질, 군민들에 대한 봉사와 사회상 등을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우선 여기에서는 군수와 현령들의 퇴임 사유 등이 흥미 있어서 이것들을 정리해 보았다.

2. 조선 시대 평해 군수들의 퇴직 사유

평해 군읍지 중 “군선생(郡先生)”이라는 항목에서 평해 군수의 이름과 재직 기간 그리고 간략한 이직 사유가 기록되어 있다.(참고 3)이 내용은 1440년경부터 평해군 읍지를 편찬하기 직전인 1897년까지 거의 460 년간 기록이 온전히 남아있다. 그사이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전쟁과 환란이 많아서 소실된 자료들이 많은데, 평해군 읍지 기록이 온전하게 남아 있다니 놀랍기도 하다. 조선이 1392년에 세워졌으므로 초기 기록은 없고, 조선이 건국된 지 약 50년 뒤부터의 기록인 셈이다.

평해 군수는 1440년경부터 1471년까지 30년간에는 “군선생(郡先生)” 또는 “지군사(知郡事)”로 불린 것 같다. 부임 연도와 퇴직 연도가 없는 이양(李壤)이 처음으로 기록되고 1442년 안격(安隔)이 부임한 이후부터 부임 연도와 퇴직 연도가 나타난다. 관등명이 지군사로 된 1440년경부터 1471년까지는 11명, 군수로 기록된 1471년부터 1897년까지 203명이 평해 군수로 지냈다. 합쳐서 214명이 457년 동

안 평균 2년 정도 평해 군수로 재직했다. 평해 군수들의 퇴직하게 된 사유를 분류해 보면 표 1과 같다.

표 1. 조선 시대 평해 군수 교체 사유

	교체 사유	한문 원문	회수	비
1	임기 만료	과체(瓜遞)	21	
2	체직	체귀(遞歸)	18	체직은 정기 또는 수시 인사 시 관직이 교체되는 것.
3	폄黜되어 체직됨	폄체(貶遞)	29	낮은 업무 평가로 교체되는 것.
4	별세	별세(別世)	13	
5	사직	사체(辭遞)	5	직위를 스스로 그만 두는 것.
6	병	병체(病遞)	6	병으로 그만 두는 것.
7	부모상	상(喪)	11	부모 상을 당해서 직위를 그만두는 것.
8	이배	이배(移拜)	40	다른 곳의 직위를 받아서 옮기는 것.
9	파직	파(罷)	55	파직된 것.
10	불분명		16	퇴직 시기없이 도임(到任) 시기만 기록된 것을 포함.
	합계	214		

한글로 번역된 글 중에서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은 용어들을 먼저 설명하고 표에서 분류한 내용을 설명하려고 한다.

(1) 체직(遞職) – 체직은 관직이 교체되는 것을 말하는데, 다른 직책으로 옮겨가는 것이 아니고 그 직에서 물러나는 것을 말한다. 한문 원문에는 “체귀(遞歸)” 또는 그냥 “체(遞)” 한 글자로 기록되어 있다. 다른 직책으로 옮겨갈 경우 “이배(移拜)” 등 다른 용어를 사용했다. 관직 교체를 나타내는 “체(遞)”는 여러 가지 다른 교체 사유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교체가 있다.

표 2. 군수 교체의 종류와 설명

		설명
1	채(遞)	교체되는 것.
2	과체(瓜遞)	임기 만료되어서 교체하는 것, 임기 만료가 된 뒤에도 그 자리에 남겨두는 것을 임임(仍任)이라고 한다.
3	贬체(貶遞)	낮은 직무 평가로 강등되어 교체되는 것.
4	사체(辭遞)	사표를 내어서 그만두는 것.
5	병체(病遞)	병으로 그만두는 것
5	상피체(相避遞)	부자지간 등 친족 중 상위 관련 관직에 있는 경우에 그만두는 것.
6	나체(拿遞)	암행어사 등에 의해 체포되어서 그만 두는 것. 암행어사에 의해 체포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파직이 되는데(拿罷), '나체' 기록이 있다. 원문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다.
7	좌체(坐遞)	죄인과 연관되어 벼슬을 그만두는 것.
8	경체(京遞)	경체(京遞)는 평해군읍지에서 “서울에서 체직됨”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이조와 형조에서 교체한 것으로 보인다.

경체(京遞)의 번역에 대한 설명 – 다른 체직들은 체직 사유가 붙어서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명이 붙은 것이라 조금 이상한 번역이다. “경체”의 정확한 뜻을 찾기 위해 서울 “경(京) “자가 붙은 다른 용어들을 찾아보면” 경찰(京察) “이 있다. 경찰은 도목정사(都目政事)와 같은 뜻으로 이조와 병조에서 행하는 인사행정을 뜻한다. 그렇다면, 경체는 이조와 병조에서 군수를 바꾼 것을 경체라고 기록했다고 추론할 수 있다. 뒤에 경파(경파)와 도목정사를 설명할 때 다시 참조하면 좋을 것이다.

(2) 이배(移拜) – 다른 곳으로 직무를 받는 것을 말하는데, 비슷한 품계의 벼슬로 옮기는 경우를 이배라 하고, 승진해서 가는 경우는 초배(超拜)라 한다. 어떤 기록에서는 초배를 그냥 이배라고 기록된 것도 있으므로 초배도 이배에 포함시켜 표를 만들었다. 제수는 왕이 천거를 면제하고 직접 중앙 관서의 벼슬을 내리는 것을 말하는데, 제수(除受)도 이배에 포함시켜 표를 표시했다. 천거(薦舉)는 조선시대에 추천받은 자를 간단한 시험을 거쳐 관료로 임용하던 인사제도이다.

“도목정사(都目政事)로 이배”라고 번역된 것 중 도목정사란 조선 시대 매년 두 번 혹은 네 번 이조와 병조에서 행하는 정기 인사행정을 말한다. 도목(都目) 또는 도정(都政)으로 줄여 부르고, 소규모의 정기 인사는 정(政)이라고 줄여서 부른다. 관리의 유고나 필요에 따라 수시로 하는 인사를 산정(散政)이라고 한다.

(3) 파직(罷職) – 파직은 그 관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인데, 파직 방법으로 기록된 것은 대관의 탄핵, 암행어사 등의 장계 등에 의한다. 파직 방법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파직의 종류

	파직의 종류	설명
1	파(罷)	무엇 때문에 또는 누구에 의해 파직이 되었다는 내용 없이 그냥 파직된 것만 기록된 것.
2	대파(臺罷)	대관의 탄핵으로 파직된 것.
3	계파(啓罷)	계파는 장계에 의한 파직.
4	장파(狀罷)	계파와 같음.
5	수의파(繡衣罷)	암행어사가 파직시킨 것.
6	재상파(災傷罷)	재해 방지와 수습을 못해서 파직시킨 것.
7	폄파(貶罷)	직무 평판이 나빠서 파직시킨 것.
8	경파(京罷)	“서울에서 파직”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앞에서 지적된 경체와 마찬가지로 이조나 형조에서 파직한 것으로 번역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음.

대파(臺罷)는 대관(臺官)이 파직시켰다는 것을 말하는데, 대관은 사헌부의 관원을 칭할 때 사용하는 명칭이므로 사헌부에서 파직을 시켰다는 것을 말한다. 계파(啓罷)는 장계(狀啓)에 의한 파직이다. 장계는 관찰사, 병마절도사, 수군절도사 등 왕명을 받고 지방에 나가 있는 신하가 자기 관하의 중요한 일을 국왕에게 보고하거나 청하는 문서이다. 본도계파(本道啓罷)는 해당 군이 속한 도관찰사가 장계를 올려서 파직

시킨 것이고, 형조계파(邢曹啓罷)는 형조에서 장계를 올려서 파직시키는 것이다. 암행어사의 장계에 의한 파직은 수의계파(繡衣啓罷)라고 한다. 수의(繡衣) 또는 수(繡)는 암행어사를 다르게 표현하는 글이다. 수의나거(繡衣拿去)도 있는데, 이것은 암행어사에 의해 붙잡혀 가는 것이다. 암행어사는 임금에게 장계를 올려서 파직시키는 것이 정상이지만, 먼저 파직시킨 후 장계로 나중에 보고하는 경우도 있었다.

3. 조선 시대 울진 현령과 군수 교체 사유

국역 울진군지 중 관안(官案) 부분에는 고려말 현위 2명이 포함되어 있고, 조선 시대 울진 현령(縣令)과 울진 군수들의 기록은 태조때 4명의 기록과 1396년 다음 거의 100년간 기록은 없다가 연산군 5년 (1499년)부터 다시 이어지고 조선이 일본과 합방된 후 1936년까지 기록되어 되어 있다.(참고 4) 고려말 2명과 한일합방후 9명을 제외하고, 조선 태조 때 기록된 4명과 연산군 때부터 조선 말기 1910년까지 217명, 합계 221명의 울진현령 및 군수들의 퇴직 사유를 분류해서 표를 만들면 표 4와 같다. 1896년 현에서 군으로 변경되었으므로, 현령 209명과 군수 12명이 된다.

평해군읍지 번역과 울진군지 번역은 번역 시기와 번역자가 다를 뿐만 아니라 원문 출처와 원문 편찬 시기가 달라서 사용된 용어도 조금 다르고 글자체도 조금 다른 것이 있다. 울진군지 중 현령과 군수들의 퇴직 사유도 평해군 군수들과 같이 설명해야 하므로 평해군읍지와 울진군지의 원문도 살펴보고 또 평해군읍지와 다르게 사용된 몇가지 용어들에 대한 설명을 더하고자 한다.

군수나 현령이 교체되는 표현은 “갈마들 체(遞)” 인데, 울진군지에서는 대부분 원문에서 “성씨 체(遜)”을 사용했다. 성씨 체(遜)도 울진군지 원문에서 교체된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울진군지에는 현령과 군수들의 문관, 무관, 음관, 남행 등의 출신 구분이 전체는 아니지만, 140명 정도에 기록되어 있다. 이 140명을 나누어 보

면 무관이 80명, 문관이 46명, 음관과 남행이 합쳐서 14명이다. 음관, 음사, 그리고 남행은 모두 같은 뜻으로 과거를 거치지 않고 조상 공덕으로 벼슬을 받은 것을 말한다.

표 4. 조선 시대 울진 현령과 군수들 교체 사유

	교체 사유	한분 원분	횟수	비고
1	임기 만료	개만(箇滿), 과체(瓜達), 과귀(瓜歸)	14	
2	교체되어 떠남	체거(遙去), 체귀(遙歸), 체귀(遞歸)	22	탈 없이 직무를 마친 것.
3	강등되어 교체	폄체(貶遙)	42	
4	별세	졸(卒)	9	임기 중 사망
5	사직	사체(辭遙)	11	사직서를 쓰거나 그냥 그만둔 경우
6	병	병체(病遙)	3	
7	부모상	상(喪)	18	
8	이배	이배(移拜)	32	이배, 초배, 제수 포함
9	파직	파(罷), 파직(罷職), 파체(罷遙), 파출(罷黜), 체파(遞罷)	55	
10	불분명		15	부임 시기만 있는 것과 아무 기록이 없는 것 포함.
	합계		221	

현령이나 군수로 부임하기 전의 벼슬도 표시된 것이 있는데, 정언(正言)은 사간원의 관원, 훈정(訓正)은 훈련원의 관원, 당상은 정3품 이상의 품계에 해당하는 벼슬이다. 호랑(戶郎)은 육조(六曹) 중 호조(戶曹), 공랑(工郎)은 공조(工曹), 비랑(備郎)은 비변사(備邊司)의 정5품 정랑(正郎)이나 정6품 좌랑(左郎)을 말한다. 사직은 사직서를 제출하고 벼슬을 그만두는 것이고, 그 사유는 알 수 없지만, 울진 현령 중에는 사직으로 기록되지 않고 그냥 벼슬을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간 기귀(棄歸)의 경우도

3건 있다 (사직에 그 숫자를 더했다).

울진군에서 파직당한 현령이나 군수가 55명로 4명 중 한명꼴이고, 평해군과 비율이 같다. 파직 또는 면직 사유 중 재해와 관련 된 것이 3회, 매와 관련된 것이 3회, 민란과 의거에 관련된 것 3회, 소나무 벌채와 관련된 것이 1회 등도 기록되어 있다. 음관의 경우 파직시키지 않고 면직시켰다.

4. 토론과 결론

평해군읍지와 울진군지는 각기 다른 시기에 다른 사람들에 의해 서로 다른 곳에서 편찬되었다. 울진군읍지에 정두제는 1657년 평해군수로 승진해 갔다는 기록이 있고, 평해군읍지에 정두제가 울진현령을 지내다 1657년(정유년)에 평해군수로 부임했다는 일치하는 기록이 있다. 또 평해군읍지에 1812년(임신년) 조운영이 울진현령으로 이배했다는 기록과 울진군지에 조운영이 같은 해에 부임했다는 기록이 일치한다. 이런 기록들은 평해군읍지와 울진군지 기록이 신빙성이 있다는 근거가 된다.

평해 군수들과 울진 현령과 군수들의 교체 사유를 표1과 표 4를 통해서 비교해 보면 그 경향이 비슷하다. 따라서 이 내용들은 조선 시대 전국의 상황과도 비슷할 것이므로 조선 왕조의 사회상 등을 연구하는데 좋은 자료가 될 것이다. 군수들과 현령들이 이배를 간 곳을 보면 가까이는 울진과 평해에서 철원, 울산 등 인접한 강원도와 경상도뿐만 아니라 충청도 청주, 충주, 전라도 강진, 익산, 황해도 강령, 함경북도 명천, 경원 등으로 전국 팔도에 골고루 배치된 것을 알 수 있다. 전국적인 인사 배치로 문물의 교환 및 지식의 흐름도 골고루 한 것으로 보인다.

별탈없이 무사히 임기를 마친 임기 만료를 포함한 교체가 17%, 그리고 승진, 제수를 포함해서 다른 곳으로 발령을 받아간 이배는 17% 정도이다. 부모상을 당해서

벼슬을 그만 둔것은 7%, 일반 사직은 4%, 질병 사직은 2% 정도다. 재작 중 사망한 평해와 울진의 군수나 현령은 5% 정도다. 군수들이나 현령들의 건강 상태와 업무 상태도 연관시켜 볼 수 있을 것이다. 낮은 업무 평가를 받아서 강등되어 교체된 것은 16%에 달한다. 파직이 25%나 된다. 높은 파직 비율을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

파직은 근본적으로 백성들을 잘 다스리지 못한 것일 것이다. 관심을 끄는 파직 사유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가) 재해를 처리 관련 파직: 재상파(災傷罷) 또는 재상사파(災傷事罷)
- (나) 약재 등 진상품 관련 파직: 이약재궐봉 계파(以藥材闕封 啓罷), 진상궐봉 계파(進上闕封 啓罷)
- (다) 죄수 관리 관련 파직: 정배죄인 도환기가(定配罪人 逃還基家)
- (라) 매와 관련된 파직: 응사파(鷹事罷). 매를 잡는 일 또는 키우는 일을 잘못해서 파직당한 것.
- (마) 임금에게 하례 편지를 보내지 않은 것: 배전미급사장파(拜箋未及事狀罷)
- (바) 민란이 일어나서 파직: 이민요파면(以民擾罷免)

민란으로 파직되거나 면직된 시기는 1902년부터 시작해서 1908년 경까지 이어진다. 조선 왕조가 1907년에 없어지고 고종이 1907년 대한제국 황제로 이어지고 1910년 일본과 합병되기 전의 시대가 혼란스러웠음을 나타낸다. 조선왕조 마지막 임금 고종 때 울진현으로 부임한 현령은 모두 27명인데, 정식 과거를 보지 않은 음관(음사, 남행 포함)이 13명이고 무관이 14명이고 문관은 없다. 기록된 전체 음관 14명 중 13명이 고종 때 부임했다. 조선 말기의 어지러운 사회상과 관리 임용의 한 단면일 것이다.

조선 시대 여러 병란 중 가장 타격이 큰 임진왜란 때(1592–1598) 평해 군수와 울진 현령들의 역할은 그들의 임기와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임진왜란 때 평해 군

수들의 기록을 보면, 김덕관은 1591년 4월에 부임해서 1593년 윤11월에 별세했다. 윤열(尹說)은 1594년 부임해서 1599년 임진왜란이 끝날 때 까지 임무를 수행했고 1599년 2월 남도병마절도사로 영전해 갔다는 기록이 보인다. 윤열은 임진왜란 때 공을 세운 것이다. 한편 이 시기 울진 군수는 5명이 바뀌었는데, 3명이 탄핵을 당하고 한명은 강등당하고 다른 한명은 임기를 마치고 돌아갔다고 기록되어 있다.

평해군읍지와 울진군지를 보면 직무를 잘 수행해서 승진해서 다른 곳으로 더 높은 자리로 간 기록도 많지만, 백성들을 잘 보살핀 훌륭한 군수와 현령들도 많이 기록되어 있다. 예를 들면, “기근이 들어 백성들이 흘어지자 유민(遺民)들을 구휼하였더니 다시 모였으며 백성들이 그를 부모와 같이 여겼다”라는 정구수(鄭龜壽) 울진 현령 기록도 있고 이후에도 흉년을 대비하고 백성들의 부역을 줄이고 염초상납전(焰硝上納錢)을 받지 않는 등 백성을 위한 군수와 현령들의 기록이 많다.

평해와 울진 군수 및 현령들의 교체는 울진과 평해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당시 조선의 행정체계나 시대를 조명한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 조선 시대의 여러 가지 변란과 당쟁과의 관련, 기근, 질병, 흉수, 가뭄 등 환경 재해와의 관련 등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원본 자료들의 검증과 찾지 못한 이전 자료들의 발굴이 필요하다.

〈첨부： 특이한 기록과 잘못된 주해〉

(1) 특이한 기록 – 국역 환여승람 울진군 강원도평해군 읍지 제275쪽 하단과 제276쪽 상단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

* 전현룡田見龍 <건륭 29년 갑신년(1764년) 7월 15일에 부임하여 을유년(1765년) 1월 10일에 연좌되어 체직됨>

* 권도權導 <건륭 30년 을유년(1765년) 1월 4일에 부임함>

* 전현룡田見龍 <건륭 30년 을유년(1765년) 1월 15일에 연임되어 병술년(1766년) 10월 장계로 파직됨>

여기에서 전현룡은 두 번 기록되어 있는데 같은 인물로 보이며, 1월 10일 연좌되어 체직되었다가 연좌가 풀려서 1월 15일 연임되어서 평해 군수를 계속 맡은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같은 해 같은 달 1월 4일에 부임한 “권도”는 무슨 사유인가? 권도의 퇴임 연도도 기록되어 있지 않고, 권도의 부임 일자가 후임자 전현룡의 부임일자 치이가 4일에 15일로 11일 밖에 되지 않는다. 무슨 변고인지 이 부분을 더 살펴보는 것이 흥미있을 것이다.

(2) 잘못된 주해 – 2012년 발행된 “국역 울진군지” 제5쪽 17번 주해는 잘못된 것 같다. 17번 주해에서 원래 원문에 “청사(青蛇)이후”로 기록된 것은 “용사(龍蛇) 이후”의 오기(誤記)이므로 “용사(龍蛇)이후”로 고쳤다고 하고, “이는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난 해가 ‘용’의 해, 그 다음해인 1593년 계사년이 ‘뱀’의 해이기 때문에 용사이후(龍蛇以後)라는 말은 임진왜란 이후라는 의미와 같다”는 설명을 붙였다. 그러나 이 설명은 잘못된 것으로, “청사(青蛇)이후”가 맞는 기록일 것이다. 왜냐하면, 첫째 임진왜란은 1592년부터 1598년 사이에 일어났고, 임진왜란 이후 공사제적이 좀먹어 없어졌다고 하는 것은 임진왜란 전에 공사제적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그런데, 박성오는 1631년(신미년)에 울진현령으로 부임해서 임유후에게 울진군 군지 편술을 부탁해서 원본을 만들었고, 이상성은 1713년(계사년)에, 그리고 이행민은 1724년(갑진년)에 울진현에 부임해서 군지를 보완하려고 했다. 모두 임진왜란 이후의 사람들과 일들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두번째, 음양오행설로 청적황백흑의 다섯 색을 보면 갑(甲)과 을(乙)은 청색을 의미하고, 을사년(乙巳年)은 청사년(青蛇年)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행민이 부임한 갑진년 다음해가 을사년(1725년)이므로 원본에서 얘기한 ‘청사이후’는 ‘1725년(을사년) 이후(이행민 이후)’라는 의미가 적절하다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울진문화원, “국역 조선환여승람 울진군. 강원도 평해군읍지”, 2017년,
2. 울진문화원, “국역 울진군지(蔚珍郡誌)”, 2012년.
3. 울진문화원, “국역 조선환여승람 울진군. 강원도 평해군읍지”, 2017년,
pp. 264–281; pp. 393–403.
4. 울진문화원, “국역 울진군지(蔚珍郡誌)”, 2012년,
pp. 128–139; pp. 360–367.